

중국 에어컨 산업 현황과 전망

1. 에어컨 산업 현황

□ 급속한 생산설비 확충으로 세계 에어컨 생산 대국 부상

- 1990년대 초 중국의 에어컨 시장은 수입상품(미쓰비시, 히타치, 샤프)과 중국산(華寶, 格力, 春蘭)의 몇 개 제품만이 공급되는 수요부족 상황
- 그 후 높은 이윤으로 중국 기업들의 생산규모 확대와 더불어 신규기업 진출로 현재 세계 에어컨 생산량의 1/3 점유
 - 생산능력 연산 80만대 이상 기업: 美的, 格力, 海爾
 - " 40~80만대 기업: 春蘭, 科龍, 海信 등
- 에어컨 생산량이 1997년 일본을 추월 세계 1위로 부상
- 중국 에어컨 제조 기업을 생산량과 점유율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하면, 1그룹은 중국 기업 외에 합작기업으로 三菱이, 2그룹은 LG를 포함한 합자기업과 가전기기업으로 신규 참여한 長虹, 海信 등이 있음. 3, 4그룹은 전국적인 판매망이 아닌 지역적인 판매망만을 갖추거나 중소 브랜드 기업임.

<표1> 생산량, 시장 점유율 기준 기업 분류

	기업	비고
1 그룹	海爾, 美的, 格力, 春蘭, 科龍, 三菱(三菱重工, 電機)	
2 그룹	夏普, 日立, LG, 松下, 長虹, 海信	
3 그룹	華凌, 古橋, 森寶, 奧克斯, 小天鵝	지역 브랜드
4 그룹	西冷, 愛特, 藍波希島, 利凱爾	중소 브랜드

자료: 廣東省廣告公司市場研究中心

□ 가전 기업의 신규 참여로 가격인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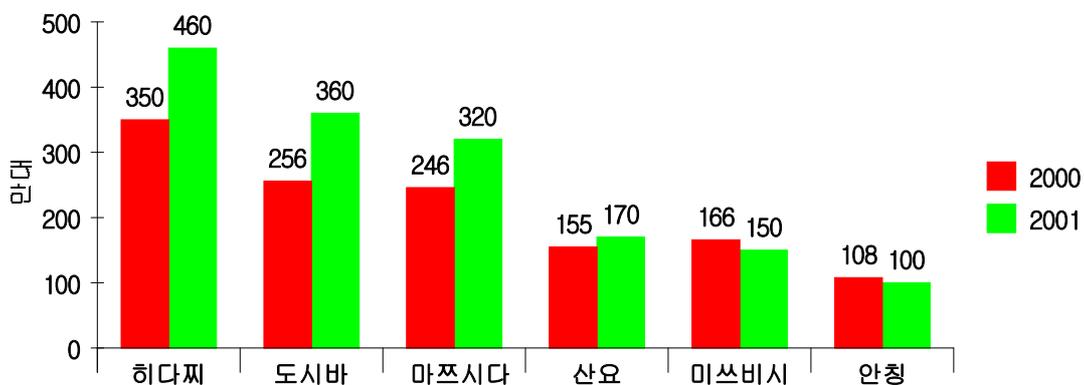
- 컬러 TV,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長虹, 海信, 新科, 樂華, 格蘭仕, TCL 등 중국 유명 가전기기업의 신규 참여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가격인하 심화
- 공율 3,500w 이하의 가정용 에어컨의 가격 인하가 더욱 심함

- 전자레인지의 기업인 格蘭仕는 20억 위안(2.4억 달러)를 투자하여 에어컨과 냉장고를 생산, 2001년 에어컨 생산량 200만대를 시장가격 3,300~3,500 위안(400~420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출하
- 중국 에어컨 기업의 매출총이익율은 25~30%이지만 경쟁 격화에 따른 광고,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로 세전 이익률이 5% 수준임. 중국 기업들 가운데 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春蘭임
- 생산자와 대리상들의 재고 증가로 사은품 증정, 5년간 애프터서비스 실시, 전기료 대지급 등 경쟁적 관측활동 치열

□ 컴프레서 등 핵심부품 공급부족 현상 지속

- 에어컨 생산 증가에 따른 에어컨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부족 상태에 있음
- 이는 첫째, 가전 기업의 에어컨 생산 신규 참여에 따른 컴프레서 수요 증대 둘째, 중국 내자기업의 컴프레서 생산 기술 확보 기업 부족으로 합작기업의 생산량 확대에 의존한데 기인함
- 컴프레서 생산기업은 합작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기업이 합작 법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절대 생산량도 압도적임. 이밖에 합작법인으로는 LG, 미국기업 등이 있음.
- 2000년 중국 에어컨 총생산량은 1,827만대이나 압축기 생산량은 1,200만대로 부족분은 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도1> 중국 주요 컴프레서 생산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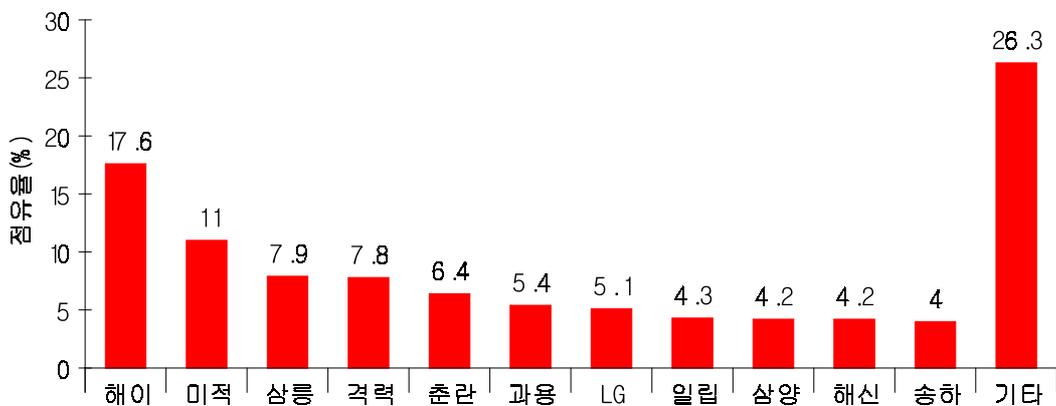
자료: ‘空調 商情’, 市場報, 2001

- 에어컨 생산 신규 진입증가와 기존 기업 생산능력 확대에 의한 컴프레서의 공급부족으로 컴프레서 생산기업 세전 이익률은 여전히 20%에 이릅니다
- 그러나 지속적인 컴프레서의 생산 확대로 향후 3~5년 후에는 공급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기업 난립으로 산업 집중도 낮음

- 海爾, 美的, 格力, 春蘭 등 상위 4개 기업의 에어컨 시장 점유율은 42.8%이며,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 역시 68.5%로 산업 집중도가 그리 높지 않음
 - 2001년 현재 중국 에어컨 생산기업은 대략 400개에 달함. 2000년 매출액 기준 기업수
 - 매출액 10억 위안(1.2억 달러) 이상 기업 8개사;
 - 매출액 5억 위안(0.6억 달러) 이상 기업 18개사;
 - 매출액 1억 위안(0.2억 달러) 이상 기업 47개사.
- 이는 중국 에어컨 산업이 늦게 시작되면서 2000년을 전후하여 신규 진출기업의 증가에 따라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지 못한데 기인
- 2000년 에어컨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海爾 17.6%, 美的 11.0%, 三菱 7.9%로 상위 3개 기업 간 시장 점유율 차이는 6.6% 포인트, 3.1% 포인트에 불과함. 나머지 기업들의 점유율 차는 거의 미미한 수준
 - 중국 내자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67% 수준이고, 나머지는 합작기업 생산 제품이나 수입제품이 차지

<도2> 에어컨 시장 점유율(2000)



자료: China Marketing, 2001

□ 벽걸이형 에어컨이 소비시장의 주류 형성

- 에어컨은 벽걸이형, 스탠드형, 창문형, 천장형 등이 보급되고 있으나, 벽걸이형이 전체 에어컨 소비량의 60~6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스탠드형 20~25%, 창문형 10~12%, 천장형 3~5% 등임
- 또한 냉난방 공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 추세이며, 현재 수요는 50% 수준임. 고부가가치 제품인 변속 에어컨의 수요는 9% 정도에 불과
 - * 定速과 變速의 차이는 전자는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속도로 작동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전원차단이 필요한데 반해, 후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운전 속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전원 차단 불필요

2. 에어컨 수급 현황

□ 꾸준한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초과공급 상태 지속

- 중국의 에어컨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1995년~2001년) 연 평균 23.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에 더욱 가속화됨
- 에어컨 수요량도 같은 기간 동안 21.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생활 수준 향상, 에어컨 생산 기업 난립에 따른 가격인하, 이상 기온에 따른 고온 지속 등에 기인함.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0년, 2001년 각각 전년대비 40.0%, 42.8%의 높은 수요 증가율 기록

<표2>

중국 에어컨 수급현황

단위 : 만 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 산 량	683	786	850	1,157	1,337	1,827	2,363
수 요 량	480	580	620	720	750	1,050	1,500

자료 : 賽立信市場研究有限公司 및 2001년 중국통계연감

- 중국 에어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되어 2000년에 370만대, 2001년 579만대로 2001년은 전년대비 56.5% 증가. 주요 수출지역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임. 반면 수입량은 79.4만대와 105만대이며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미국임
 - 최근 4년간의 에어컨 평균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이며, 수출량과 수출액 증가율은 각각 67.7%, 48.2%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유럽은 중국 에어컨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을 이미 5.2%에서 1.6%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 수요 증가 큼

- 지역별 소득 격차에 따라 에어컨 수요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해 중심의 화동지역, 북경·천진 중심의 화북지역, 무한 중심의 화중지역, 광주 중심의 중남지역임.
- 전국 주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의하면,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중지역이 39.4%, 북경의 화북지역이 24.0% 등의 순으로 수요가 큼.

<표3> 중국 주요 도시 에어컨 가정당 구매율(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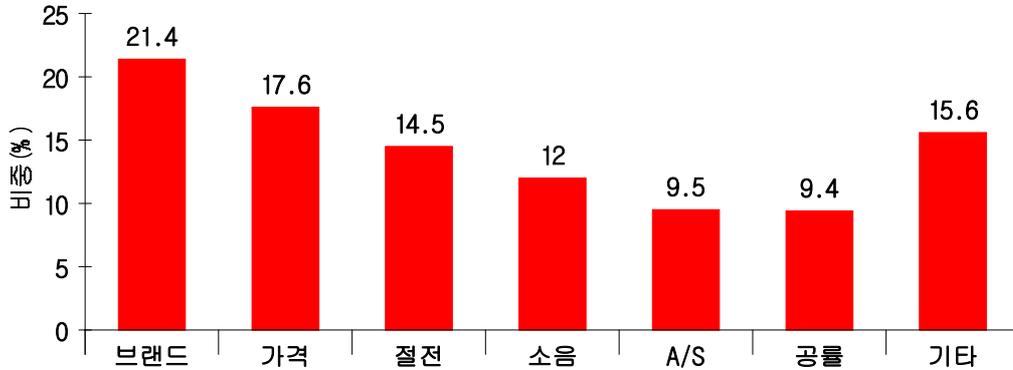
	도시			도시	
		구매율			구매율
화북지역	북경	13.6	화동지역	상해	25.3
	천진	8.7		제남	2.9
	심양	0.5		남경	5.3
	대련	0.8		항주	4.2
	하얼빈	0.4		청도	1.7
화중지역	무한	8.9			
	정주	3.3			
중남지역	광주	7.8	서부지역	중경	6.6
	심천	2.6		성도	0.9
	복주	2.1		서안	3.4
	하문	0.9		곤명	0.1

자료: 廣東省廣告公司市場研究中心

□ 브랜드, 가격이 소비자 구매의 우선 고려사항

- 중국 소비자의 에어컨 구매 성향은 브랜드, 가격, 절전, 소음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밖에 A/S, 적정 면적을 나타내는 공률, 기능 등도 고려함

<도3> 소비자의 에어컨 구매 성향



자료: 廣東省廣告公司市場研究中心

3. 향후 중국 에어컨 시장 전망

가. 발전방향

- 쾌적·저소음·절전 등 고효율과 환경 친화적 에어컨 수요 점차 확대
 - 海爾가 온도변화에 따른 變速 에어컨을 1993년 출시한 이후, 변속 에어컨 시장이 海爾, 海信, 다국적 기업 합작회사 등을 중심으로 2000년 10%의 시장 점유. 수년 후 변속 에어컨 수요가 전체 시장의 50% 점유 전망
 -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프레온 가스 배출 없는 에어컨 생산이 海爾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원가 부담 때문에 당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종의 에어컨에 비해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海爾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독일로 수출하고 있음
 - 2000년부터 근로자의 주택 개인 소유로 전환되면서 100m² 이상의 주거 공간으로 중앙 집중식 에어컨 시장도 점차 형성되고 있음. 중앙 집중식 에어컨 시장은 단순하게 종전 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나뉘며 효율과 쾌적한 환경면에서 신기술 제품이 훨씬 선호되고 있음. 다만 신기술 제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음
→ 신기술 제품의 중앙 집중식 에어컨 핵심기술은 다국적기업만 보유

-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충 등을 통한 유명 브랜드 지향
 - 에어컨 기업의 난립과 신규 진입자의 증가 등 생산부문에만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아직 체계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충하지 못한 상태임.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지역별 많은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충이 필수적임
 - 에어컨은 가전제품과는 달리 구입 후 설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비스 네트워크는 필수적임. 실제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에어컨 성수기에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으로 판매량 증대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음

□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국의 에어컨 산업은 많은 생산 기업, 과다 생산능력에 따른 가격 인하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생산능력도 대부분 중·저가 제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간의 차별화가 없음
- 최근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에어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다만 백색 가전 대기업들이 에어컨 시장에 참여하면서 기존 에어컨 기업을 인수하는 정도에 그침
 - 長虹의 中山三榮, TCL의 卓越, 小鵝의 匯豐 등을 인수함
- 그러나 향후 3~5년 내에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연적

나. 시장 전망

□ 에어컨 보급률 지속적인 상승 예상

- 중국 에어컨 보급률은 2000년 말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30.8% 수준에 불과함
 - 선진국의 경우 에어컨 보급률이 30%에 이를 때, 에어컨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짐
- 중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수준에 도달되지 않았지만 중·저가품 공급의 증가로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저소음·절전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 특히 프레온 가스 이용 제약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프레온 가스 이용을 제한할 전망
 - 중국이 냉장고, 냉동고 등에 대해 2005년부터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프레온 가스 사용 규제도 곧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에어컨 수요량 차이 편차가 큼. 2001년 말 현재 에어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동지역, 중남지역, 화북지역, 서북지역, 동북지역 등으로 각각 당해 지역의 52.5%, 46.5%, 42.2%, 22.1%, 3.7%임
→ 향후에도 이들 지역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공급 초과 현상 가속될 듯

- 2004~2007년이 되면 중국 에어컨 시장이 안정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중국의 냉장고, 세탁기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데 대략 12~15년의 기간이 흐른 점을 고려할 때, 에어컨 시장이 1991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2~5년 후면 안정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안정 성장 단계의 에어컨 수요량은 2,600~2,800만대 수준으로, 이는 내수와 수출 각각 2,000만대와 600~800만대임
→ 중국 경공업 10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에어컨과 컴프레서 생산량이 모두 2,6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의 생산능력에 신규 진입기업 증가, 컴프레서 생산기업의 생산량 대폭 확대에 따른 가동률 증대 등으로 공급 초과 현상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3~5년 뒤에는 현재 세전 이익률이 5% 수준 이하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년간 가격 경쟁 지속 전망

- 시장경쟁의 주된 수단이 제품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가격 인하 경쟁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 생산 제품의 동질화
 - 신규 시장 진입으로 공급 초과 현상 지속
 - 다양한 브랜드 난립으로 이합집산 불가피
 - 일부기업들(格蘭仕, 春蘭, 海信 등)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가격인하 실시 등에 기인

문의 :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 3779-6647, jykim@koreaexim.go.kr
: 차 장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
: 대 리 이지언 ☎ 3779-6655, jeyi@koreaexim.go.kr